자기주장, 진짜 내 가족 버리기

(잠언 18:1~24)

1.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2.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3.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4.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자기주장, 진짜 내 가족 버리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자기주장, 진짜 내 가족 버리기'
캐나다 영화 "Mr.스타벅"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미국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Starbuck)은 주인공이 사용하는 익명입니다. 주인공 데이비드 우즈냑은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도 사고만 치고 다니는 철부지입니다. 가업인 정육점에서 큰형과 동생이 일하는 동안 데이비드는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채 빚을 갚기 위해서 집에서 몰래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제 마음을 잡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로써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데이비드의 인생에서 상상도 못할 최대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에게 533명의 자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젊은 시절에 '스타벅'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무려 600회에 걸쳐 자신의 정자를 판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2만 달러가 넘는 큰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가족들을 이탈리아 여행에 보내주었는데, 아무도 데이비드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자로 인해 무려 533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142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겠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엽기적이고 민망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한 상황입니다만 이 영화가 각종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만큼 재밌고 감동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제공하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142명의 명단과 이력이 적힌 종이다발을 건네받고, 자신이 아버지인 것을 숨긴 채 자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부성애는 있었던 것입니다. 무능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부성애가 재미있고 감동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은 142명의 자녀가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겠다고 하는데 정작 아버지가 정체를 숨긴 채 자신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정자를 기증한 자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한 원칙은 자신들이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의 소송은 패소하게 됩니다만 주인공은 이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엄마가 흑인이어서 피부가 검은 아이도 있고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찾은 기쁨에 파티를 벌입니다. 생전 알지도 못했고 본적도 없었던 이들이 한 아버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뭉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파티를 벌이고 어려움을 나누려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아름다웠습니다. 본시 교회의 모습 또한 이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개교회주의로 인해서 한 쪽에서는 수백억짜리 예배당이 올라가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끝없이 갈라지는 교회의 분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아래에서 이해관계 없이 뭉치고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는 모습을 그려낸 영화의 한 장면에서처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개교회의 분파와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으로 뭉칠 수 있다면 참 멋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야만 했던 참 교회의 모습이 사라진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주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구절입니다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이 쉬운듯하면서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부분을 우리말 성경과 표준새번역에서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랍비나 지도자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져서 사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다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스스로 갈라섰던 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대결을 벌일 때에 스스로를 무리로부터 갈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란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나 모임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무리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무리로부터 갈라져 나온 자들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들로서 온갖 참 지혜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은 곧 자기주장을 의미합니다. 2절 하반부를 보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지혜 곧 명철은 수입해야 하는 석유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 사고 대상들에 대한 올바른 지혜는 결코 내게서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에게서도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을 관철(貫徹)시킨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위협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습성을 가진 자들은 참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로부터 갈라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서 나오는 판단은 결코 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마음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성전의 번제단을 허락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꾸 자기주장을 펼치려는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 글을 쓴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한 번에 많은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천 번이나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려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이나 죽였던 자신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파악하려고 하는 나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려는 나를 죽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는 스스로 판단하는 나를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죽이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무리들로부터 스스로를 갈라 세우는 자'에서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소속감의 문

제가 대두됩니다.
구약에서 선민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소속감의 근원을 잘못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혈육 즉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소속감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된 일이었습니다. 선민의 소속감은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번제단에 달려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의 소속감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야만 했고 이것이 유지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선민으로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상번제의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양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판단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소속감이었고, 솔로몬은 이것을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는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듣던 호주에서 듣던 미국이나 유럽에서 듣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안에서 뜬 해는 세계 모든 곳에서도 같은 해입니다. 하나의 태양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지는 십자가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두는 것만이 교회가 가진 소속감의 핵심이고 근원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것은 자기주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발생하는 판단을 바깥으로 표현해 내기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진정한 소속감으로부터 갈라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스타벅의 위치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쉽습니다. 서로를 몰랐던 이들이 스타벅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연합했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십자가에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내 속에서 나오는 판단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짜 판단이고 악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십자가에서 연합해야 할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회나 직분이나 목사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십자가 단 한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영화에서 서로 다른 142명의 사람들이 스타벅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연합했던 것처럼, 몸은 비록 떨어져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가족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임이 하나님이 보시는 참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참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얼굴조차 모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이들이

나의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표면상의 가족일 뿐입니다.
영화에서는 한 명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가져야할 본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모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는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낼 때에 가족은 완성됩니다. 또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지 않아도 마음을 십자가로 보내는 이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나의 가족이고 부모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 소속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주장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자연스럽게 자기주장을 합니다. 회사의 말단 사원이라고 해서 자기주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내 말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마음 안에는 자기주장이 가득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로부터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주장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참 지혜를 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시키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생길지라도 일단은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별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주어질 것이고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될 확률은 늘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확률로 말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 속에서 생기는 생각과 진리를 타인에게 절대시하며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00%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던 것도 드러내 제시하실 뿐이었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여 그 뜻을 증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주어지는 일이 늘어날수록 그것은 4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샘처럼 터져 나와 주변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판단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에 그것은 현실에서 성취되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주장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활화 될 때에 주님과의 연합은 지속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참 지혜를 구하는 무리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고, 하나님의 주장만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자기주장의 습성이 죽고 하나님의 참 지혜만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이들과 같은 소속감을 누리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